

연구논문

# 농촌 주부의 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 도시근교 농촌을 대상으로 -

배희선 · 최은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A Study on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of Rural Housewives

Bae, Hee-Seon · Choi, Eun-Sook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of rural housewives. The second objective i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The Deacon & Firebaugh's mode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and previous studies were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regarding age, income, number of family, education level, and farming/nonfarming as independent/input variables, and monthly saving and managerial behavior index as dependent/throughput variables. A sample of 179 rural housewives aged less than 60 was selected from Shihung-Si Gyonggi-Do Province.

Results showed that rural housewives more frequently did keeping bills, making purchase-list, and verifying purchase need than recording where money spent, making financial plan, and evaluating spending. With regard to household debt use, 60% of the sample had debt, the most borrower used debt for farming, 73% of borrowers paid for their debt behind the schedule, and the main source of borrowing was NACF (NongHyup). Using installment credit, the rural housewives mainly bought cosmetics. 25% of the sample had credit cards. Average debt was 6,070,000 won, and 81% of annual income. In terms of saving, 85% of the sample saved, and 23% of the sample lived with the money after save. The main reasons of saving were for education and marriage of children and emergency. The main saving institutions were NACF and NLCF (ChukHyup).

The regression showed that incom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onthly saving, and age was identified as the positive determinants of managerial behavior index.

**Key Word** : rural housewives, household debt use, saving, managerial behavior index.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추진된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농촌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공업화 위주의 경제개발은 국민의식면, 소득면, 생활수준면, 산업구조면등에서 여러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촌주부들

의 합리적인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의식 수준 면에서의 변화로 농촌여성의 사회적 안목이 높아지고 핵가족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부부관계가 대등해짐에 따라 농가의 재무관리에 관한 결정에 농촌여성의 참여와 실권이 높아져 가고 있다(정용복, 1992). 더욱이 농가 소득과 생활 수준의 증가로 다양해진 가족 구성원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내의 적절한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가족의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위한 재무관

리가 필요하고 이에 관한 농촌 주부의 기술과 식견이 요망되고 있다.

한편, 공업화 위주의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농촌의 영세한 경영규모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도시와의 소득과 생활환경의 격차는 농촌의 상대적인 복지의감 소를 가져왔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사회 지표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84%인 반면에 가계비 지출은 더 많은 실정에 있다(이영대, 1991). 이와 같이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가소득 문제와 더불어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비효율적인 구매 체계, 그리고 소비자 정보의 부족문제등으로 인하여 농가는 비합리적인 소비지출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한기, 1990; 소비자보호원, 1988; 윤정혜, 1984; 김기화, 1980).

관리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원사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Deacon과 Firebaugh, 1988) 개인과 가족은 관리를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의 압력에 대처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는다. 재무관리란 가계의 재정자원 분배의 계획, 수행작업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의 재정적인 복지 향상을 꾀할 수가 있다(Godwin, 1990). 즉,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결과로서 객관적인 재정상태의 향상 뿐 아니라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상승도 동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주부는 비합리적인 소비지출 개선을 위해, 다시 말해서, 현재 직면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무관리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해진 가족구성원들의 만족감을 보다 합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농촌주부들의 효율적인 재무관리 교육과 관련정보의 전달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정에 입각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odwin(1990)은 재무관리에 관한 총설에서 재무관리에 관한 미국의 기존연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각기 다른 재정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재무관리 행동 규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무관리연구는 주로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이

루어졌으며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뤄져 왔을 뿐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상의 문제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인 농촌생활 개선프로그램 담당자나 교육자들에게 농촌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의 가정경제 지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부들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며, 둘째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모델과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좀 더 폭 넓은 재무관리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얻는 것이다.

## II. 선행연구

재무관리행동 연구는 크게 실태파악 중심의 형태와 가족자원관리 영역인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모델에 적용된 재무관리행동 연구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재무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 종합하여 실태파악에 필요한 변수들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가족자원관리 영역에서 재무관리행동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온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이론에 적용된 연구들을 조사하여 본 연구모형에 필요한 변수들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서술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재무관리행동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론이 제시하는 기본 구조에 의하면 체계란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하는 부분들의 통합된 집합이며, 가족은 투입, 관리과정, 그리고 산출의 세 요소로 구

성된 관리적 체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체계라고 본다. 여기서 투입이란 결과나 산출을 달성하려는 관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체계에 들어가는 물질, 에너지, 그리고 가족정보를 말한다. 관리과정은 투입으로부터 산출로 가는 물질, 에너지 혹은 정보를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그 효과는 투입과 산출의 조화 정도를 결정한다. 관리과정은 계획과 수행으로 구성된다. 계획은 자원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표준을 세우고 순서를 계획하는 것을 말하며, 그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수행과정이다. 관리체계의 마지막 부분인 산출은 요구와 자원 투입요소에 대한 반응으로 관리체계의 영역안에서 관리과정의 결과로 생긴 자원변화와 요구충족이다.

체계모델은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수한 문제 및 관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Heck, 1983; 김연정과 김순미, 1991, 재인용) 가족자원관리 영역에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연구는 주로 이 모델을 적용하여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투입요소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로 하였고,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은 매개 변수 또는 종속변수로서 일반적인 계획·수행행동지표와 저축행동이나 가계부채사용행동등으로 구체화하여 관리과정요소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부의 재무관리행동 실태와, 독립변수이자 투입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종속변수이자 관리과정 변수인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므로 여기서는 재무관리행동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연구와 Deacon과 Firebaugh(1988)에 적용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모델에 적용하여 투입/독립변수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관리과정/종속변수로 사용된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연구를 먼저 고찰한다. 그 다음은 계획·수행행동지표, 가계부채 사용행동과 저축행동에 관한 재무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뤄진 관련연구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이자 투입요소로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관리과정요소로 사용된 재무관리행동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무복지에 관한 연구(김연정, 김순미, 1991)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자원과 요구와 매개변수로 작용한 가계관리 능력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내생변수인 가계관리능력은 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인당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선희와 오정옥(1991)의 부부의 재무불일치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재무관리행동 연구에서도 그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부인의 재무관리행동인 수행행동은 부인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이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결혼 지속년수와 가족원수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 두 연구외에도 가정관리 행동의 일부영역으로서 금전자원 관리행동이나 재무관리행동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김숙이, 문숙재, 1988; 김재경, 문숙재, 1992).

임정빈(1991)은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Deacon과 Firebaugh 모델에 적용하여 투입과 관리과정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인 관리과정 변수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재무관리행동 영역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움, 목표를 위해 정기적 금함, 가계부 기록, 예산 수립, 정기적으로 구매 행동 평가, 찾기 쉬운 곳에 고지서와 영수증 보관, 구매전 목록 작성, 시간 사용 계획, 충동구매, 청구액에 최소한 지불(minimum payments), 당좌계정에 이자(연체료) 물기(pay interest on charge accounts), 잔일이나 직업에 관련된 일과 함께 구매하기, 필요한 때에 일을 완료하기 등이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응답자는 한국응답자보다 좀 더 재무관리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소비자교육의 역사와 학교와 생활개선 단체를 통한 재무관리 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액에 대한 최소한 지불이나 계정에 이자물기는 가계부채 사용에 대한 변수로서 아직 신용카드나 할부구매에 대한 이용도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

안할 때 우리 농촌주부의 재무관리행동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가정에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재무관리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연정, 김순미(1991) 및 정선희와 오정옥((1991)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재무 관리의 중요성 뿐 아니라 더 많은 재정적 대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국가정에서는 가족의 요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선희와 오정옥(1991)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은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에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실태분석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재무관리행동의 계획·수행행동을 포함한 농가관련 연구로는 김혜경(1990), 김희순(1991), 그리고 이한기(199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표본수가 20여가구인 김혜경(1990)의 연구에서는 농촌주부의 예산생활을 생활비 계획과 가계부 기록상태를 통해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김희순(1991)의 농가의 가계비관리행태 조사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가계비 관리를 비계획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주부가 많았다. 이의 원인으로 소득이 적고 불안정한 것이 돈의 관리의욕 상실 및 가계부 기록의 저하의 주요인이라고 한다. 또한, 이한기(1992)의 농촌소비자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가계부의 기록율은 16%로 매우 낮고 계획적인 상품구입 행동인 구매 물품의 기록이나 사전 정보 탐색 행동도 과반수 이상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불안정할수록 소득평균화를 위한 적극적인 소득관리행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소득의 불안정성과 적음을 극복하여 재정적인 복지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가계부채 사용행동과 저축행동에 관한 농가의 재무관리행동 실태를 중심으로 이뤄진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가계부채사용과 저축행동은 행동유무, 태도, 행동이유,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존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며, 농가의 가계부채사용행동과 저축행동을 결정 짓는 요인들은 2가지로 집약 될 수 있었다. 첫째요인은 농업의 저생산성과 농수산물의 특수성이다. 즉,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비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내에 팔 수밖에 없고 도시와 비교해 농업소득이 불규칙하고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농업을 지속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채사용이 불가피하고 규칙적인 저축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요인은 농촌가족이 갖는 목표순위와 관련된다. 최은숙(1992)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가족이 갖는 목표의 우선순위는 건강한 삶, 자녀의 성공, 화목한 가족 생활, 경제적 여유, 충분한 여가 생활, 충분한 영양,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좋은 집에서 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녀의 성공을 중시하는 농촌 가족의 특성은 자녀교육비 비중에 관한 여러 연구(이용만, 1986, 김혜경, 1990, 이희순, 1991)에서 잘 나타난다. 이용만(198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이촌취학의 비율이 높아지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농가의 경제규모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이촌취학이 높다고 한다. 농가 경제에서의 교육비 지출의 비중은 취학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촌취학은 과대한 농가의 교육비 지출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농가의 저축행동과 가계부채 사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의 두가지 요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김혜경(1990)의 농가 생활 연구에서는 농촌이 안고 있는 부채의 원인으로 영농 자금이 일순 위였고, 다음 순위로는 교육비 지출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김희순(1991)의 조사결과를 보면 정기적금은 조사대상의 52.8%가 하고 있었으며 보험의 주목적으로 자녀교육이 50.5%를 차지하고 있었고, 계의 주목적은 영농 자금 마련이었다. 농가 부채는 조사가구의 76.5%가 가지고 있었고, 가계부채의 22%가 가계성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생산성이었다. 빚을 지더라도 자녀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충이 87.9%로 자녀교육에 관한 열의를 잘 나타냈다. 또한 저축하는 사람은 절반 가량의 사람이 우선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저축이유로는 자녀 교육 및 결혼 등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자원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농가의 재무관리행동의 실태에 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 김혜경(1990)의 경우 표본수가 20여가구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다른 실태분석 연구들은 부분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므로 보다 일반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투입변수들로는 교육, 가족수, 연령, 소득, 결혼지속년수 등이 조사되었는데 결혼지속년수는 일반적으로 연령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이를 함께 변수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농촌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영농여부를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다뤄진 재무관리행동은 크게 소비생활과 예산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계획·수행관리지표, 저축행동, 가계부채사용행동으로 나뉜다. 계획·수행관리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각 대상(외국, 도시주부, 농촌주부)에 따라 각 문화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작성되어야 만이 정확한 지표가 되리라 생각된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행지표는 예산생활, 가계부기록, 구매전 필요확인, 목록작성, 영수증보관, 구매후 평가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가계부채사용변수는 부채유무, 갚는 태도, 쓰는 이유로, 저축행동은 저축여부, 저축태도, 저축이유, 저축기관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부채사용 행동변인으로 이외에도 최근 많이 행해지는 할부구매행동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농가의 부채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부채의 크기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저축행동에 사용된 변수들 외에도 월별 저축율과같이 규칙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저축행동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원관리 연구들은 주로 도시주부나 부부

를 대상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재무관리는 일반 자원 관리의 일부로 다루어졌다(김재경, 1992; 임정빈, 1991; 임정빈, 1990; 정선희, 1991; 김숙이, 1988). 따라서 체계 요소에 적용된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는 농촌이나 다른 사회계층, 또는 노인층과 같은 다양한 표본에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재무관리는 지역, 인종집단, 그리고 국가에 따라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최대 만족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는 같지만 이에 접근하는 방식은 각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라간의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한 나라안에서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것도 자원관리 개념을 넓게 적용하여 차이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인 연간소득(가족의 농외소득과 농업소득), 영농여부, 연령, 교육, 가족수, 경지규모, 농업형태는 무엇인가? 조사대상의 계획·수행관리지표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조사대상의 가계부채사용행동과 저축행동인 재무관리행동은 어떠한가?

2) 연간소득, 영농여부, 연령, 교육, 가족수에 따라 재무관리행동인 월별저축율과 계획·수행행동지표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본 연구의 두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모델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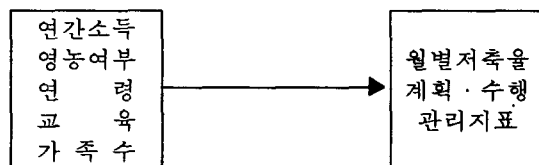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I. 연구 방법

#### 1. 측정도구

1) 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관리행동 실태분석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재무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현실태를 자세히 파악함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재무관리행동 변수들은 선행연구 부분에서 밝힌 재무관리행동 관련연구들(김연정, 김순미, 1991; 김재경, 문숙재, 1992; 임정빈, Vickie S. Fitzsimmons과 Jeanne L. Hasfstorm, 1991; 정선희, 오귀옥, 1991, 김혜경 외, 1990)을 참조하여 채택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영농여부나 농업형태, 경지규모 변수들은 농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사료되어 포함하였다. 재무관리행동중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할부구매행동, 신용카드 소지여부, 평균부채액을 채택한 이유는 최근 농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할부구매행동이나 신용카드 소지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의 부채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부채의 크기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저축행동으로 사용된 변수들 외에도, Sumarman과 Hira(1992)을 참조하여 소득중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월별저축율을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월별저축율은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저축행동일 뿐 아니라 저축액보다 저축에 대한 적극성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 연간소득(가족원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영농여부(조사대상농가가 영농을 안하는 경우=0, 하는 경우=1), 연령, 교육정도, 가족수, 농업형태(주작목), 경지규모를 포함하였다.

② 재무관리행동 : 가계의 재정자원을 분배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반되는 관리행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수 있다.

계획·수행관리지표 :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항목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부가 행하고 있는 계획·수행행동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구매필요확인, 목록작성, 영수증보관, 구매평가에 대해 “언제나 한다”를 5점, “전혀

하지 않는다”를 1점화하여 측정된 다음 다시 3점미만을 1, 3점을 2, 4점이상을 3점화하였다. 계획·수행관리지표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h's Alpha)는 0.71로 양호한 편이었다.

가계부채사용행동 :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가계부채의 유무, 쓰는 이유, 갚는 태도, 출처외에 대표적인 가계부채(신용)사용행동인 할부구매행동, 신용카드 소지여부, 조사대상농가의 평균부채액을 포함하였다.

저축행동 : 기존연구에서 다룬 저축여부, 태도, 이유 및 저축기관, 정기적인 저축 농가, 불규칙적인 저축 농가외에, 월별저축율((규칙적인 월별저축액\*12/연간평균소득)\*100)을 포함하였다.

2)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이론과 이를 적용한 재무관리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재무관리행동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에서 사용한 변수들 중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채택하였다.

① 독립변수/투입 :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연간소득, 영농여부, 연령, 교육, 가족수.

투입에는 가족체계에 자원배분에 관한 동기를 제공하는 요구와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인 자원이 있다. 가족체계내의 경제적인 물질자원과 인적자원을 반영하는 척도로는 연간소득이나 영농여부, 연령, 교육 등이 있고 가족의 요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는 가족수라고 할 수 있다.

② 종속변수/관리과정 : 재무관리행동의 월별저축율, 계획·수행관리지표.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으로는 월별저축율과 계획·수행관리지표를 사용하였다. 월별저축율은 실질적이며 규칙적인 재무관리행동이며, 단순한 월별저축액보다 월별저축율은 저축에 대한 적극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월별저축율=((규칙적인 월별저축액\*12/연간평균소득)\*100)으로 구성하였다. 5점화된 계획·수행관리지표는 분석을 위해 다시 3점미만을 1점, 3점을 2점, 4점 이상은 3점으로 하여 모두 더하여 단일지수화 하였다.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과 연성동에 거

주하는 결혼한 60세 미만의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대상을 농촌주부로 한 것은 농촌주부들의 재무관리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로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농촌생활 개선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의 필요성 때문이다. 조사지역 선정이유는 근교라는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자료수집이 용이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에 속해 있으나 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의 특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먼저 주민 28명을 대상으로 1994년 4월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조사자들이 면접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후에 비현실적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질문지 내용은 수정되었다. 그 후 목감동과 연성동 20여개 통의 부녀회장님들과 접촉하여 10개통을 본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조사자들이 면접방법으로 1994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179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질문지 결과를 토대로 SPSSC+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된 주부의 평균 연령은 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은 무학에서 중졸이 90%를 차지하며 가족수는 평균 4.7명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가계의 78%는 영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작목으로는 축산업과 수도작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기타로 표시된 부분 중에서 과일을 하는 농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고, 주작목들이 비교적 소득원이 높은 농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간평균농업소득은 평균 1026만원으로 전국농가의 연간평균농업소득 843만원과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가계의 소득수준이 약 180만원정도 더 높았으며, 전체 도시근교농가의 연간평균농업소득 748만원(농수산연보, 19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빈도수 (%)
연령(세)	45	12	32	
25~29				8(5)
30~39				65(36)
40~49				40(22)
50~59				35(20)
60이상				31(17)
주부학력(명)				
1: 무학				61(36)
2: 국졸, 중퇴				40(23)
3: 중졸, 중퇴				61(36)
4: 고졸, 중퇴				6(5)
경지면적(평)				
논	1112	1753	-	
밭	646	986	-	
연간 소득(천원)	1556	1463	1200	
농업소득	1026	1428	-	
농외소득	518	835	-	
노임/급료	339	639	-	
임대료/이자	27.5	162	-	
가내부업	13.8	141	-	
사업소득	135	639	-	
농업형태: 주				
축 산				57(32)
수도작				60(34)
기 타				53(34)
가족수(명)	4.7	1.5	4	
영농농가(호)				139(78)

다른 지역의 농가와 비교할 때 도시근교의 특성으로 인하여 농외소득을 가족원들이 많이 가진 편이었다. 전 도시근교농가의 연간평균농외소득 704만원(농수산연보, 1993)과 비교해볼 때 이 지역의 연간평균 농외소득은 518만원으로 전근교농가의 연간평균 농외소득보다 더 낮았지만, 전체농가의 연간평균농외소득 504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들 중에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사무직에, 일반주부의 경우 노임을 받는 일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농외소득중 노임/급료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높은 농외소득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식당이나 슈퍼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도시근교인데다 큰 강줄기를 끼고 있어 주말방문객(뉘시꾼)

으로 인한 소득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정적인 자원이 도시근교농촌을 제외한 타지역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의 불규칙성과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평균화를 위한 재무관리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조사대상 농촌주부의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행동을 크게 계획·수행관리지표, 가계부채사용행동, 저축행동을 포함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수행관리지표중에서(표 2) 가장 많은 주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영수증보관과 구매 전 필요확인, 그리고 목록작성 후 구매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하고 있지 않는 관리행동들은 예산생활, 가계부기록과 구매 후 평가작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조한 관리행동에 대한 교육과 지식을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표 2 〉 조사대상의 계획·수행관리지표

	3점미만		3점		4점이상	
	N	%	N	%	N	%
예산생활	66	37	37	21	74	42
가계부기록	88	50	29	16	60	34
필요확인	33	19	29	17	110	64
목록작성	55	32	27	16	88	53
영수증보관	25	15	6	4	142	81
구매평가	90	52	23	13	59	35

\* 총 빈도수는 각 항목당 결측치로 다소 다를 수 있음

다음으로 가계부채사용행동에 대해 살펴볼 때,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한 농가의 60%가 부채를 갖고 있다. 부채를 쓰는 이유로는 영농자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택개량, 농지구입, 부채상환, 교육비, 생활비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영농자금을 위한 부채사용이 가장 많다는 점은 일치하나 교육비에 대

한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 지역의 농가에서는 가처분소득중 교육비에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고 교육비보다는 생산확대나 생활향상을 위한 비목에 대해 부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계부채사용자의 73%정도는 부채를 상환해야 할 시기보다 늦게 갚고 있는데, 이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에 대한 출처는 주로 농협이며 이 외에도 친지나 가족 그리고 할부구매를 통해 발생한 부채 등이 있었다.

〈 표 3 〉 조사대상 가계의 부채 사용행동

변 수(호)	N(%)
부채여부	
있다	102( 60)
없다	69( 40)
부채 쓰는 이유 <sup>a</sup>	
영농자금	57( 57)
주택개량	22( 22)
농지구입	15( 15)
부채상환	12( 12)
교육비	6( 6)
생활비	5( 5)
부채갚는 태도	
예정대로	71( 27)
늦게	26( 73)
부채의 원천 <sup>a</sup>	
할부	5( 5)
외상	0( 0)
금융기관	82( 82)
친지, 가족	16( 13)
할부구매	
예	112( 63)
아니오	66( 37)
할부구매 품목 <sup>a</sup>	
의류	5( 4)
가전제품	11( 10)
화장품	112(100)
농기계	38( 34)
신용카드 소지	45( 25)
총부채액 607만원	연 평균소득의 81%

a : 중복응답

\* 총 빈도수는 각 항목당 결측치로 다소 다를 수 있음



가계부채의 한 수단인 할부구매를 이용하여 63%의 주부들이 화장품, 농기계, 가전제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구매 품목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장품은 상점판매가 아니라 주로 방문판매이므로 가격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구매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농기계는 가격이 높은 편이므로 할부구매를 통해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농가 부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농가의 25%가 소지하였으나 주로 농협에 의한 권고로 소지하였으며 사용빈도도 도시 가구에 비해 매우 적었다. 조사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607만원으로 연간소득의 81%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도시근교농가의 평균 부채인 652만원에 비해 45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대상 농촌주부의 저축행동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의 85%의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었고 이들 중 62%는 생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저축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저축이유로서는 자녀교육과 결혼을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56%), 그 다음으로 비상시를 위해(42%), 노후대비를 위한(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혜경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가계는 예비적 동기형태로 저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저축기관으로는 마을금고, 은행, 사채놀이, 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김혜경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조사농가의 월 평균저축액은 36만원으로 월 평균소득의 44%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사농가에서는 상당히 저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김희순(1991)의 연구결과에서 보인 52.8%의 정기적금농가와 비교하면, 저축을 매달 규칙적으로 하는 농가가 전체의 63%로 더 많은 편이었다.

〈 표 4 〉 조사대상 가계의 저축행동

변 수	N (%)
저 축	
예	146 ( 85)
아니오	26 (15)
저축행동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	39 (23)
생활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	107 (62)
여유없어 저축 못함	24 (14)
저축필요 못 느낌	2 ( 1)
저축이유 <sup>a</sup>	
노후대비	37 (25)
자녀교육/결혼	82 (56)
큰 물건장만(주택, 농토)	18 (12)
재산증식	2 ( 1)
비상시 위해	61 (42)
부채갚기 위해	1 (0.6)
공과금	1 (0.6)
저축기관 <sup>a</sup>	
마을금고, 축협, 농협	110 (75)
은행	45 (31)
계	8 ( 5)
사채놀이	27 (18)
보험	3 (2.0)
우체국	2 (1.3)
현금보관	1 (0.6)
저축의 규칙성	
정기적인 저축행동	93 (63)
불규칙적인 저축행동	53 (37)
규칙적인 월평균저축액 36만원	월평균소득의 44%

a : 중복응답

\* : 총 빈도수는 각 항목당 결측치로 다소 다를 수 있음

## 2. 사회인구학적변수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Deacon과 Firebaugh (1988)의 모델과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사회인구학적변수가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변수/투입으로는 교육, 소득, 연령, 가족수, 영농여부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관리과정변수로는 월별저축율과 계획·수행관리지표를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제 영향력을 알아보는 동시에 회귀분석을 위한 다중공선성조사를 위해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5에서와 같이 교육과 연령간의 상관도가 .5를 넘어서 다시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10 이상 정도의 분산확대지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이영준, 1991), 본 연구결과는 1정도 내외의 분산확대지수값을 보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수들간의 단순상관결과(표5)에 따르면 계획·수행관리지표와 연령과는 부적관계를

〈 표 5 〉 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연 령	1.000						
2. 소 득	-.189	1.000					
3. 가족수	-.019	-.054	1.000				
4. 영농여부	.000	-.039	.221*	1.000			
5. 교 육	-.583**	.104	-.047	-.073	1.000		
6. 월별저축율	-.022	-.183**	-.004	-.031	.011	1.000	
7. 계획·수행 관리지표	-.365**	.115	-.065	-.072	.285	-.101	1.000

\*p < .01 \*\* < .001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계획·수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저축율은 소득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월별저축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중결정계수값(R<sup>2</sup>)은 .1955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월별저축율의 변동을 약 20%정도 설명하고 있다. 월별저축율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는 소득으로 표준화 계수 값이 -.1958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월별저축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저축액보다 월별저축율은 저축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더 잘 나타내므로 소득이 더 적은 농가일수록 저축을 하기 위해 더 많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계획·수행관리지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는 중결정계수값(R<sup>2</sup>)이 .3870으로서 계획·수행관리지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설명력이 월별저축율에 대한 설명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만이 계획·수행관리지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계획·수행행동을 더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촌주부들을 위한 농촌생활 개선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나이가 많은 계층, 예를 들어 20, 30대보다 40, 50대를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재무관리정보 및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표 6 〉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표

독립변수	종속변수 월별저축율 β	종속변수 계획·수행관리지표 β
영농여부	-.0378	-.0572
연 령	-.0650	-.3583**
소 득	-.1958**	.0414
가 족 수	-.0076	-.0570
교 육	-.0099	.0988
R <sup>2</sup>	.1955	.3870

\*p < 0.01 \*\* < 0.05 \*\*\* < 0.005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임정빈(1991) 연구의 재무관리행동지표와 정선희와 오정옥(1991)의 수행행동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교육과 가족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정과 김순미(1991)에서 가계관리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소득도 무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근교농가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모델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이자 투입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종속변수이자 관리과정변수인 재무관리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조사대상 가계는 도시근교농가로 연간평

균농의소득이 전체농가의 연간평균농의소득보다 높은 편이며, 주작목도 수도작과 축산, 과일 등으로 농업소득도 전체 도시근교농가의 평균농업소득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자원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의 평균화를 위한 관리활동이 필요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확보된 경제자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부의 연령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력은 무학에서 국졸까지가 59%정도이다. 그러므로 재무관리행동 교육시 연령과 학력을 고려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기초로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수행관리지표중에서 농촌주부들은 가계부기록, 예산생활, 구매평가에 관한 관리행동이 저조하므로 이에 관련된 지식과 필요성에 대한 재무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가계부채사용행동을 살펴보면, 가계부채를 쓰는 이유로는 영농자금이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택개량, 농지구입, 부채상환, 교육비, 생활비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조사대상 가계는 가처분소득중 교육비에 우선 지출하고 있고 교육비보다는 생산확대나 생활향상을 위한 비목에 대해 부채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채무자의 73%정도의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해야 할 시기보다 늦게 하고 있는데 이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부채에 대한 출처는 주로 농협이며 이외에도 친지, 가족, 할부구매 등이었다.

신용의 한 수단인 할부구매를 이용하여 주부들이 구매하는 주요 품목인 화장품은 상점판매가 아니라 주로 방문판매이므로 가격조사와 함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농기계는 가격이 높아 할부구매를 통해 주로 구입되며 농가 부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가구의 평균 총부채액은 607만원이었으며 연평균소득의 81%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신용카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조사농가의 25%가 소지하였는데 주로 농협에 의한 권고로 소지하였으며 사용빈도도 도시 가구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도시가계에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소비가 증

가하고 이로 인한 재정악화나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자산과 소득이 도시와 비교해 불규칙하고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농가의 특징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의 연체료나 이자율 또는 관련규약들에 대한 지식과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재무관리교육을 충분히 하여 비합리적인 사용을 막아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가 농촌에서는 도시만큼 일반화되지 않았으나 카드를 소지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확산되리라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합리적인 가계운영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리라 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신용사용의 이점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구매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래의 소득을 차용하는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자신이 얻는 만족감과 이 비용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반비용의 내역과 산출방법에 관한 재무관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넷째, 저축행동을 살펴보면, 85%의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었고 이들중 62%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남는 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이유로서는 자녀교육과 결혼을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비상시를 위해, 노후대비를 위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가계는 예비적 동기형태로 저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축기관으로는 마을금고, 은행, 사채놀이, 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칙적인 월평균저축액은 36만원이었고 월평균소득의 44%정도 되었다.

다섯째, 월별저축율과 계획·수행관리지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농가의 소득과 주부의 연령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월별저축율이 높고 연령이 적을수록 계획·수행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저축에 대한 적극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계획·수행행동 경험수준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획·수행관리행동이 미진하므로 재무관리교육을 접근함에 있어 보다 나이 많은 계층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각 연령

층별로 재무관리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만이 주부들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저축경향을 보이므로 최근에 이루어진 3단계금리자유화로 각 금융기관별로 금융상품의 금리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하여 적금금리 및 요구불예금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받는 저축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책의 일환인 농어민목돈마련저축 프로그램은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자산증식에 유리하나,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항상 타 저축프로그램과의 금리 및 조건비교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촌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실태분석과 Deacon과 Firebaugh(1988)의 체계모델 및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돕고 재무관리교육의 효율적인 자료를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재정만족감 상승이나 객관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향상이 미치는 재무관리행동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주관적 재정만족감에 미치는 재무관리의 하위영역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더 큰 표본수를 이용하고 각 개념에 적합한 항목 및 척도개발과 변수들간의 직접적인 관계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표본수도 적고, 전 농가가 아닌 도시 근교농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 농가로 일반화시키는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재무관리행동에 대해 다각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자원관리모델 및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규명을 시도해 본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는 농촌가계를 지도하는 재무관리관련 농촌지도사업 프로그램과 정책결정에 기초지식으로 활용되리라 본다. 또한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해 주는 금융기관 등의 재무상담가들에게

농촌가계에 대한 재무관리실태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VI. 참고문헌

- 김기화(1980), 농촌과 도시의 소비자 행동 분석. 고려대석사논문.
- 김숙이, 문숙재(1988), 도시주부의 경제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1~24.
- 김연정, 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무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김재경, 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 김혜경, 문숙재, 문숙재, 윤정숙, 이영(1990), 농가생활연구. 신광출판사.
- 김희순(1991), 농가의 가계비관리행태 조사분석. 농촌생활과학, 47(2), 4~7.
- 농림수산연보(1993), 농림수산부 행정 간행물.
- 윤정혜(1984), 농촌 소비자의 구매전 비교탐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9~176.
- 이영대(1991), 사회 지표로 본 농촌 생활. 농촌생활과학, 12(3), 45~47.
- 이영준(1991), SPSS/PC+ 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도서출판 석정.
- 이용만(1986), 농가자녀의 이혼취학과 농가 교육비지출. 농촌경제, 9(4), 73~83.
- 이한기, 한귀정(1992). 농촌소비자 행동분석. 농촌생활과학, 13(1), 19~22.
- 임정빈, Vickie S. Fitzsimmons과 Jeanne L. Hasfstorm(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 : Deacon과 Firebaugh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81~94.
- 정선희, 오귀옥(1991), 가계의 재무 불일치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35
- 정용복(1992), 사회변화와 농촌여성역할. 농촌생활과학, 13(3), 43~47.

농촌 주부의 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농촌소비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 최은숙, 한경혜, 박양자 (1992), 한국농촌의 질 지 표개발 및 진단.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3(3), 63~84.
-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 Boston : Allyn and Bacon.
- Godwin D. D. (1990), Literature and Resource Review Essay. Family Relations, 39, 221~228.
- Heck, R. K. (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Noh, HeeSeon (1991), The Effects of Credit Use On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ntr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Ames, Iowa State University.
- Sumarwan, Ujang & Hira, T.K. (1992), Credit, Saving, and Insurance Practice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Preparation for Financial Emergencies Among Rural Household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21 (2), 206~227.